

대학 교양체육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수업몰입의 병렬매개효과

조원호¹ · 서광봉²

¹명지대학교 객원교수 · ²경민대학교 교수

The Effects of Perceived Caring Climate on Sport Character among Participant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Team Sports Classes: The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Class Engagement

Cho, Wonho¹ · Suh, Kang-Bong²

¹Myongji University · ²Kyungmi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caring climate on sport character and the parallel mediating effects of class engagement among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ng in general education team sports classes. Data from 287 students enrolled in basketball, volleyball, and soccer classes were analyzed using SPSS 21.0 and PROCESS Macro Model 4. The results showed that caring climate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gnitive, emotional, and behavioral engagement as well as confidence, sense of community, self-sacrifice, and positive attitude. Behavioral engage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all dimensions of sport character, while cognitive enga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sense of community and positive attitude, and emotional engagement wa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addition,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emotional and behavioral engagement were found for confidence,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cognitive and behavioral engagement were found for sense of community, and significant indirect effects through behavioral engagement were found for self-sacrifice and positive attitude. These findings highlight class engagement, particularly behavioral engagement, as a key mediating pathway linking caring climate to sport character.

Key words : university general physical education, team sports, caring climate, class engagement, sport character, parallel mediation

주요어 : 대학 교양체육, 팀스포츠, 케어링 분위기, 수업몰입, 스포츠인성, 병렬매개효과

Address reprint requests to: Suh, Kang-Bong

E-mail: judoskb@hanmail.net

Received: July, 31, 2026 Revised: September, 12, 2026 Accepted: September, 14, 202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 교양체육은 대학생에게 신체활동과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정서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 영역이다. 특히 생활체육과 평생체육의 디딤돌로서 학생들이 스포츠문화를 지속적으로 향유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김승환, 천성민, 김민규, 2024). 즉 평생체육의 입문 단계로서 스포츠문화 경험과 피지컬 리터러시 함양을 통해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박인경, 2025). 또한 교양체육 참여동기가 대 학생의 여가활동 몰입경험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교양체육은 스포츠를 의미 있는 여가활동으로 경험하게 하는 여가교육의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구창모, 안병옥, 전태준, 2010).

교양체육의 이러한 기능은 팀스포츠 수업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팀스포츠 활동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료와 협력하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하며(오승현, 2025), 스포츠 활동이 공정한 경쟁과 상대에 대한 존중 및 배려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Bednár, 2023). 실제로 대학 교양체육 야구 수업에서는 운동기능 습득과 경기 및 운영 논의 과정에서 학생 간 사회적 연결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박형길, 2025).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교양체육의 팀 활동은 단순한 운동기능 습득을 넘어 타인과 상호작용하고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사회적 여가교육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팀스포츠 수업 참여만으로 모든 학생이 긍정적인 경험을 얻는 것은 아니다. 체육수업에서는 운동기능과 수행 결과가 쉽게 드러나고 개인의 실수나 실패가 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은 자신

의 부족한 능력과 취약성이 노출되면서 공개적 모욕과 사회적 배제 및 폭력적 경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Metz, Zander, & Hunger, 2026), 운동기능이나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수업 참여에서 주변화되거나 소외될 수 있다(Munk & Agergaard, 2015).

반면 긍정적인 수업환경은 학생의 참여경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체육수업에서 교수자의 자율성지지는 학생의 정서적 수업몰입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Xia, Xuan, Zhang, & Zong, 2025), 대학 교양체육에서 교수자의 지도역량은 교수자신뢰와 수업만족에 정적으로 관련되었다(정태린, 2022). 또한 체육수업에서 학생이 경험하는 재미·노력과 유능감 역시 수업만족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최지아, 김영옥, 권영문, 오수학, 2024). 즉 팀스포츠 수업의 교육적·여가적 효과는 참여 여부만으로 결정되기보다, 학생이 수업과 팀 내 사회·심리적 환경을 어떻게 지각하고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팀스포츠 수업에서는 수행성과보다 학생 간 차이와 실수를 수용하고 상호지원과 공정한 참여를 보장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회·심리적 환경을 설명하는 개념이 케어링 분위기(caring climate)이다.

케어링 분위기는 구성원이 활동 환경을 친화적이고 안전하며 지지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Newton et al., 2007). 이러한 케어링 분위기는 대학의 집단 신체활동 수업에서 학생의 즐거움과 집단 연결감 및 교수자·동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되며(Newland, Newton, Stark, Podlog, & Hall, 2017),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중학생의 내적동기와 스포츠인성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정호, 김인형, 2021). 즉 팀스포츠 수업에서 케어링 분위기는 학생들이 운동능력이나 성과와 관계 없이 존중받고 도움과 공정한 참여 기회를 경

협하게 하는 환경적 조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케어링 분위기는 학생의 수업몰입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업몰입(class engagement)은 학생이 수업 내용과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과제와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김종환, 2008; 유지원, 2011).

선행연구에서 고등학교 체육수업의 케어링 분위기가 즐거움과 수업 참여에 정적으로 관련되고, 지루함과 수치심에는 부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imonton, Garn, & Washburn, 2022). 또한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케어링 분위기는 수업몰입과 교사-학생관계에 긍정적으로 관련되었으며(윤상용, 2023), 학교스포츠클럽에서도 운동몰입과 스포츠인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임수연, 민솔비, 김용은, 김준, 2020). 따라서 학생이 교수자와 동료로부터 존중과 관심을 받고 공정하게 대우받는다고 지각할수록 수업과 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수업몰입은 특정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플로우(flow)의 개념보다는(Csikszentmihalyi, 1990), 수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참여를 포괄하는 다차원적 개념에 가깝다(Fredricks, Blumenfeld, & Paris, 2004). 최근 국내외 체육수업 연구에서도 이러한 하위차원을 구분하여 수업몰입을 설명하고 있다(김성훈, 2025a; Stringfellow, Wang, Farias, & Hastie, 20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업몰입을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이해, 정서적 경험 및 행동적 참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한편 수업몰입의 실제 측정과 관련하여 Handelsman, Briggs, Sullivan, & Towler(2005)의 SCEQ는 기술몰입, 정서몰입, 참여·상호작용몰입 및 수행몰입의 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관련 선행연구에서 수업몰입이 인지적·감성적·행동적 몰입의 세 차원으로 재구

성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도 3요인 구조가 제시되었다(유지원, 2011). 이러한 구조는 체육수업 관련 연구에서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의 세 하위요인으로 적용되어 왔다(이훈희, 이석준, 2020; 윤상용, 20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근거와 측정구조를 바탕으로 수업몰입을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몰입은 수업 내용과 목표 및 역할을 이해하고 이를 수행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Fredricks et al., 2004; Linnenbrink & Pintrich, 2003), 정서적 몰입은 수업 과정에서 흥미와 즐거움 및 소속감을 경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Fredricks et al., 2004). 행동적 몰입은 과제와 팀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Linnenbrink & Pintrich, 2003; Pintrich, 2003), 팀스포츠 수업에서는 역할 수행과 공동과제 참여 및 의사소통과 협력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의 교육적 성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서 형성하고 실천하는 스포츠인성(sport character)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인성은 스포츠 활동 과정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 특성을 의미하며,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와 같은 하위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차은주, 김영재, 허정훈, 2013).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의 스포츠인성은 자기 능력과 역할에 대한 자신감, 목표와 가치를 중시하는 공동체의식, 팀과 동료를 우선하는 자기희생 및 실수와 실패에도 참여를 지속하는 긍정적 태도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스포츠인성은 규칙이나 예절 지식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활동과 학생 주도 체육활동 및

반성적 실천을 통해 체화될 수 있다(박정준, 2025). 즉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책임감, 공동체의식과 배려를 경험하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케어링 분위기는 스포츠인성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는 운동몰입뿐 아니라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수연 등, 2020). 이는 학생이 존중과 관심 및 공정한 참여 기회를 경험하는 수업환경이 스포츠인성의 여러 측면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기존 연구는 케어링 분위기와 운동몰입 및 스포츠인성의 직접적인 관계를 주로 검증하였으며, 몰입이 두 변인의 관계에서 수행하는 매개역할은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다(임수연 등, 2020). 또한 수업몰입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은 수업환경과 교육적 결과에서 다르게 관련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체육수업에서는 수업환경과 교수자의 지도 유형이 각 몰입요인에 차별적으로 관련되었으며, 수업만족에 유의한 몰입요인도 연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박태희, 이종경, 2016; 조진호, 2018). 또한 대학 온라인 수업에서도 몰입 하위요인의 영향은 수업유형과 학습결과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정은이, 2023). 따라서 수업몰입은 하나의 총점보다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을 병렬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병렬매개모형은 복수의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각 매개변인을 통한 특정 간접효과를 구분하여 추정할 수 있다(Preacher & Hayes, 2008; Hayes, 2022). 따라서 세 몰입요인을 함께 분석하면 다른 몰입요인의 영향을 통제된 상태에서 각 몰입요인이 케어링 분위기

와 스포츠인성의 관계에서 나타내는 고유한 간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종합했을 때 케어링 분위기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학생들이 존중과 관심 및 공정한 참여 기회를 경험하도록 하는 사회·심리적 환경이며,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을 통해 스포츠인성의 각 하위요인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과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세 몰입요인의 병렬매개효과를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별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케어링 분위기가 수업몰입과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각 몰입요인의 영향과 개별 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학생의 스포츠인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수업환경과 참여과정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으며,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H1.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는 수업몰입(인지, 정서,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는 스포츠인성(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의 인지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의

정서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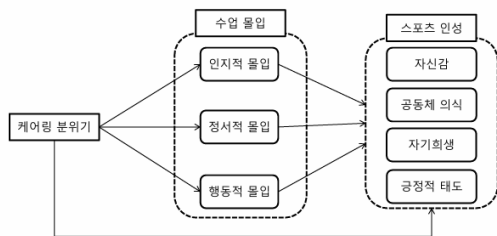
H3-3. 대학 교양 팀스포츠파 수업 참여자의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1. 대학 교양 팀스포츠파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자신감의 관계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은 병렬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4-2. 대학 교양 팀스포츠파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공동체의식의 관계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은 병렬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4-3. 대학 교양 팀스포츠파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자기희생의 관계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은 병렬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H4-4. 대학 교양 팀스포츠파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긍정적 태도의 관계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은 병렬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대학 교양체육 팀스포츠파 교과를 수강한 대학생들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6년 3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서울, 경기, 충남 지역의 10개 대학의 교양 체육수업 현장에서 이루어졌다. 담당 강사의 협조를 얻은 후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 방식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비확률표본추출 방법 중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을 통해 선정하였다. 총 310부의 설문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문항 누락, 동일 응답의 반복 등 불성실 응답으로 판단된 23부를 제외한 2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n	(%)
성별	남	147	51.2
	여	140	48.8
학년	1학년	87	30.3
	2학년	74	25.8
	3학년	78	27.2
	4학년	48	16.7
수강 과목	농구	104	36.2
	배구	114	39.7
	축구	69	24.0
전공 계열	인문·사회	74	25.8
	자연과학	48	16.7
	예체능	65	22.6
	공학	55	19.2
	의학	39	13.6
	(의학, 보건, 약학, 간호학 등)		
	기타	6	2.1
전체		287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스포츠심리학 교수 1인과 동일 전공 박사 1인, 스포츠교육학 전공 박사 1인, 총 3인의 전문가 집단이 검토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첫째, 케어링 분위기는 Newton et al.(2007)이 개발한 Caring Climate Scale을 심윤식(2012)이 한국어로 번안·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한 우승환(2025)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으며, 단일 요인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둘째, 수업몰입은 Handelsman et al.(2005)의 Student Course Engagement Questionnaire (SCEQ)를 바탕으로 유지원(2011)이 구성한 문항을 기초로 하였으며, 체육수업에서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의 3요인 구조를 적용한 이훈희, 이석준(2020), 윤상용(2023)의 연구를 참고하여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맥락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문항은 인지적 몰입 7문항, 정서적 몰입 4문항, 행동적 몰입 6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스포츠인성은 차은주 등(2013)이 개발한 스포츠참가 청소년 인성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임수연 등(2020), 임지은 등(2024)이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상황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보완하였다. 스포츠인성은 자신감 5문항, 공동체의식 4문항, 자기희생 4문항, 긍정적 태도 5문항의 네 하위 요인,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1) 케어링 분위기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케어링 분위기는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요인적재량은 .669~.798, 설명분산은 53.522%, Cronbach's α 는 .903으로 나타났다. KMO는 .95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하였다($\chi^2=1,249.601$, $p<.001$).

표 2. 케어링 분위기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케어링 분위기
케어링 분위기	케어링 분위기 1	.690
	케어링 분위기 2	.669
	케어링 분위기 3	.699
	케어링 분위기 4	.710
	케어링 분위기 5	.694
	케어링 분위기 6	.723
	케어링 분위기 7	.780
	케어링 분위기 8	.770
	케어링 분위기 9	.798
	케어링 분위기 10	.770
고유값		5.352
분산%		53.522
누적%		53.522
Cronbach's α		.903

KMO=.95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1249.601$, $df=45$, sig=.000

(2) 수업몰입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수업몰입은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의 세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분산은 59.914%였다. Cronbach's α 는 .873~.816으로 나타났다. KMO는 .8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하였다($\chi^2=2,003.192$, $p<.001$).

표 3. 수업몰입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행동적 몰입
인지적 몰입	인지 1	.651	.141	.036
	인지 2	.726	.124	.126
	인지 3	.736	.034	.111
	인지 4	.757	.022	.138
	인지 5	.733	.122	.085
	인지 6	.797	.076	.003
	인지 7	.807	.165	.082
정서적 몰입	정서 1	.038	.732	.058
	정서 2	.081	.776	.108
	정서 3	.124	.825	.062
	정서 4	.125	.836	.050
행동적 몰입	행동 1	.075	.127	.726
	행동 2	.095	.153	.736
	행동 3	.034	.026	.774
	행동 4	.043	.012	.749
	행동 5	.108	.088	.769
	행동 6	.122	.075	.809
고유값		3.971	2.657	3.558
분산%		23.360	15.627	20.927
누적%		23.360	38.986	59.914
Cronbach's α		.873	.816	.861

KMO=.87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2003.192$, $df=136$, sig=.000

(3) 스포츠인성의 탐색적 요인 분석 결과

스포츠인성은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의 네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누적 설명분산은 63.410%였다. Cronbach's α 는 .806~.847로 나타났으며, KMO는 .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유의하였다($\chi^2=1,991.643$, $p<.001$).

표 4. 스포츠인성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자신감	공동체 의식	자기희생	긍정적 태도
자신감	자신감 1	.659	.150	.106	.201
	자신감 2	.753	.087	.045	.108
	자신감 3	.786	.136	.020	.046
	자신감 4	.835	.097	.025	.079
	자신감 5	.815	.098	.075	.100
공동체 의식	의식 1	.159	.728	.128	.010
	의식 2	.064	.778	.085	.151
	의식 3	.190	.791	.027	.118
	의식 4	.088	.801	.146	.101
자기 희생	희생 1	.022	.119	.752	.086
	희생 2	.064	.058	.823	.014
	희생 3	.051	.080	.798	.106
	희생 4	.009	.054	.815	.161
긍정적 태도	태도 1	.057	.065	.066	.748
	태도 2	.062	.119	.091	.755
	태도 3	.126	.111	.109	.740
	태도 4	.108	.102	.048	.807
	태도 5	.135	.044	.134	.786
고유값		3.113	2.540	2.655	3.106
설명분산(%)		17.295	14.111	14.749	17.254
누적분산(%)		17.295	31.406	46.156	63.410
Cronbach's α		.847	.806	.822	.844

KMO=.849,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chi^2=1991.643$, $df=153$, sig=.000

4.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21.0과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차한계와 VIF를 통해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과 Varimax 회전을 적용하였고, 고유값 1.0 이상과 요인적

재량 .50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Model 4와 부트스트래핑 5,000회를 적용하여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몰입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1. 상관관계분석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케어링 분위기는 수업몰입과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r=.249 \sim .537$, $p<.01$), 수업몰입과 스포츠인성 간에도 대체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909~.933, VIF는 1.072~1.101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표 5. 상관관계분석 결과

	1	2	3	4	5	6	7	8
케어링 분위기	1							
인지적 몰입	.498**	1						
정서적 몰입	.339**	.242**	1					
행동적 몰입	.537**	.222**	.184**	1				
자신감	.325**	.215**	.394**	.328**	1			
공동체 의식	.475**	.369**	.205**	.365**	.313**	1		
자기 희생	.249**	.160**	.172**	.318**	.105	.214**	1	
긍정적 태도	.461**	.305**	.218**	.408**	.274**	.254**	.237**	1
M	3.328	3.482	3.370	3.428	3.422	3.460	3.513	3.335
SD	.888	.907	.991	.924	.980	.978	.991	.979

* $p<.05$, ** $p<.01$

2. 가설검증

(1) 케어링 분위기가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케어링 분위기는 인지적 몰입($\beta=.498$), 정서적 몰입($\beta=.339$) 및 행동적 몰입($\beta=.537$)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p<.001$). 이 가운데 행동적 몰입과의 관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표 6. 케어링 분위기가 수업몰입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변인	B	SE	β	t
인지적 몰입	(상수)	1.789	.181		9.907***
	케어링 분위기	.509	.052	.498	9.704***
	$R^2=.248$ Adjusted $R^2=.246$ $F=94.165$ ***				
정서적 몰입	(상수)	2.112	.214		9.865***
	케어링 분위기	.378	.062	.339	6.083***
	$R^2=.115$ Adjusted $R^2=.112$ $F=36.998$ ***				
행동적 몰입	(상수)	1.569	.179		8.759***
	케어링 분위기	.559	.052	.537	10.746***
	$R^2=.288$ Adjusted $R^2=.286$ $F=115.474$ ***				

* $p<.05$, ** $p<.01$, *** $p<.001$

(2)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케어링 분위기는 자신감($\beta=.325$), 공동체 의식($\beta=.475$), 자기희생($\beta=.249$) 및 긍정적 태도($\beta=.461$)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p<.001$).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태도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 7.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변인	B	SE	β	t
자신감	(상수)	2.229	.213		10.472***
	케어링 분위기	.359	.062	.325	5.801***
	$R^2=.106$ Adjusted $R^2=.102$ $F=33.650$ ***				
공동체 의식	(상수)	1.718	.198		8.692***
	케어링 분위기	.523	.057	.475	9.117***
	$R^2=.226$ Adjusted $R^2=.223$ $F=83.128$ ***				
자기 희생	(상수)	2.588	.220		11.741***
	케어링 분위기	.278	.064	.249	4.342***
	$R^2=.062$ Adjusted $R^2=.059$ $F=18.851$ ***				
긍정적 태도	(상수)	1.666	.200		8.352***
	케어링 분위기	.508	.058	.461	8.763***
	$R^2=.212$ Adjusted $R^2=.209$ $F=76.782$ ***				

* $p<.05$, ** $p<.01$, *** $p<.001$

(3) 수업몰입이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beta=.250 \sim .343$), 인지적 몰입은 공동체 의식과 긍정적 태도에서($\beta=.203 \sim .285$), 정서적 몰입은 자신감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eta=.329$, $p<.001$).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11.9~22.9%였다.

표 8. 수업몰입이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변인	B	SE	β	t
자신감	(상수)	1.117	.275		4.056***
	인지적 몰입	.086	.059	.080	1.458
	정서적 몰입	.325	.054	.329	6.053***
공동체 의식	행동적 몰입	.265	.057	.250	4.622***
	$R^2=.229$ Adjusted $R^2=.221$ $F=27.973$ ***				
	(상수)	1.074	.275		3.898***
자기 희생	인지적 몰입	.308	.059	.285	5.204***
	정서적 몰입	.082	.054	.083	1.522
	행동적 몰입	.303	.057	.286	5.291***
긍정적 태도	$R^2=.227$ Adjusted $R^2=.219$ $F=27.672$ ***				
	(상수)	1.852	.298		6.221***
	인지적 몰입	.079	.064	.072	1.234
자신감	정서적 몰입	.102	.058	.102	1.756
	행동적 몰입	.304	.062	.284	4.909***
	$R^2=.119$ Adjusted $R^2=.110$ $F=12.781$ ***				
공동체 의식	(상수)	.996	.276		3.610***
	인지적 몰입	.219	.059	.203	3.693***
	정서적 몰입	.104	.054	.106	1.938
긍정적 태도	행동적 몰입	.363	.057	.343	6.334***
	$R^2=.225$ Adjusted $R^2=.217$ $F=27.349$ ***				

* $p<.05$, ** $p<.01$, *** $p<.001$

(4)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에서 수업몰입의 병렬매개효과

자신감에서는 정서적 몰입(Effect=.118, 95%

표 9.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에서 수업몰입의 병렬매개효과

종속변인	효과 구분	매개변인	Effect	SE/BootSE	LLCI/BootLLCI	ULCI/BootULCI	t	p
자신감	총효과(c)	-	.359	.062	.237	.481	5.801	<.001
	직접효과(c')	-	.082	.079	-.074	.238	1.038	.300
	간접효과	인지적 몰입	.029	.033	-.037	.093	-	-
	간접효과	정서적 몰입	.118	.030	.065	.181	-	-
	간접효과	행동적 몰입	.129	.040	.056	.212	-	-
	총간접효과	3개 병렬매개	.277	.057	.164	.392	-	-
공동체 의식	총효과(c)	-	.523	.057	.411	.635	9.117	<.001
	직접효과(c')	-	.312	.077	.160	.464	4.069	<.001
	간접효과	인지적 몰입	.100	.033	.038	.168	-	-
	간접효과	정서적 몰입	.013	.021	-.026	.055	-	-
	간접효과	행동적 몰입	.098	.036	.030	.172	-	-
	총간접효과	3개 병렬매개	.211	.055	.104	.320	-	-
자기희생	총효과(c)	-	.278	.064	.152	.404	4.342	<.001
	직접효과(c')	-	.055	.085	-.112	.222	.644	.520
	간접효과	인지적 몰입	.030	.034	-.037	.098	-	-
	간접효과	정서적 몰입	.035	.024	-.010	.084	-	-
	간접효과	행동적 몰입	.157	.043	.078	.246	-	-
	총간접효과	3개 병렬매개	.223	.062	.103	.344	-	-
긍정적 태도	총효과(c)	-	.508	.058	.394	.622	8.763	<.001
	직접효과(c')	-	.288	.077	.136	.440	3.734	<.001
	간접효과	인지적 몰입	.059	.032	-.002	.126	-	-
	간접효과	정서적 몰입	.022	.022	-.018	.069	-	-
	간접효과	행동적 몰입	.137	.037	.067	.211	-	-
	총간접효과	3개 병렬매개	.219	.053	.118	.326	-	-

주. 총효과와 직접효과에는 SE, LLCI 및 ULCI를, 간접효과와 총간접효과에는 BootSE, BootLLCI 및 BootULCI를 제시함.

CI [.065, .181])과 행동적 몰입(Effect=.129, 95% CI [.056, .212])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공동체 의식에서는 인지적 몰입(Effect=.100, 95% CI [.038, .168])과 행동적 몰입(Effect=.098, 95% CI [.030, .172])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자기희생에서는 행동적 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나(Effect=.157, 95% CI [.078, .246]),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긍정적 태도에서는 행동적 몰입의 간접효과가 유의하였으며(Effect=.137, 95% CI [.067, .211]), 직접효과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IV. 논의

본 연구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하는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케어링 분위기는 인지적 몰입·정서적 몰입·행동적 몰입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학생들이 수업환경을 상호지원적이고 긍정하다고 지각할수록 수업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며, 팀 활동과 과제 수행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수업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며(윤상용, 2023), 교양체육 배구수업 참여 경험 연구에서 학생들은 책임감, 존중, 신뢰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협력, 리더십 및 성찰력과 같은 문제해결 역량을 함양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승현, 2025). 이와 함께 교양체육 수업에서 교수자의 교수유형이 수업몰입, 교과태도, 능동적 참여 및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본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해주고 있다(천성민, 2021). 즉, 케어링 분위기는 특정한 몰입 차원에만 제한되지 않고 학생의 인지적 이해, 정서적 경험 및 행동적 참여를 포괄하는 수업몰입 전반과 관련되는 수업환경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케어링 분위기와 관련된성은 행동적 몰입,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팀스포츠 수업이 개인의 흥미나 운동기능 수행에만 의존하는 활동이 아니라, 팀원 간 역할 수행, 의사소통, 협력 및 공동의 과제 수행이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케어링 분위기는 행동적 수업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훈희, 이석준, 2020), 케어링 과제참여 분위기가 노력, 지속적 연습 의도 및 수행 향상과 같은 행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다(Hogue et al., 2025). 즉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케어링 분위기는 학생들의 수업몰입 전반과 정적으로 관련되며, 특히 실제 팀 활동과 역할 수행으로 나타나는 행동적 몰입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교수자는 팀 편성, 역할 분담 및 평가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조별 협력,

역할 분담 및 상호 피드백을 포함한 학습자 중심 수업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학습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성훈, 2025b).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팀 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부여하고, 수행 결과보다 참여 노력과 협력 과정을 함께 평가하는 것은 학생의 수업몰입을 지원하는 수업환경 조성에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케어링 분위기는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수업에서 학생들이 교수자와 동료로부터 존중, 배려, 인정 및 공정한 참여 기회를 경험할수록 자신과 타인, 그리고 팀 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이 인지하는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의 하위요인인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긍정적 태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일치하며(임수연 등, 2020),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케어링 분위기는 공감 및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나, 배려와 존중에 기반한 수업환경이 학생들의 사회적, 도덕적 태도 형성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Gano-Overway, 2013). 즉, 케어링 분위기는 학생들의 개인적 자신감과 공동체적·친사회적 태도와 함께 관련되는 수업환경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케어링 분위기는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팀스포츠 수업은 역할 분담과 상호협력이 요구되는 활동으로, 팀 내 분위기는 동료 인식과 참여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 스포츠에서도 케어링 분위기가 높을수록 팀원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Xu, Fry, & Long, 2025). 이는 지지적인 수업 분위기가 학생들이 동료를 협력적 관계의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팀 활동에 긍정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케어링 분위기가 자신감과 자기희생과도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 결과는 배려적 수업환경이 개인적·사회적 인성요인과 함께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제민수, 김인형(2024)은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이 인지한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자신감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으며, 동시에 팀 활동 과정에서 동료들 돕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경험은 자기희생과 같은 사회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임수연 등, 2020).

이에 따라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팀 활동 속에서 존중, 배려, 책임, 협력 및 긍정적 태도를 실제로 경험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스포츠인성 교육이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 맥락에 적합한 실천 과제, 실천 공동체 활동, 학생 주도 체육활동 및 반성적 실천 활동을 통해 인성 덕목의 체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정준, 2025). 구체적으로 교수자는 팀 활동 후 학생들이 자신의 협력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짧은 성찰 활동을 제공하고, 경기 결과보다 역할 수행 과정, 동료 격려, 공정한 참여, 팀 목표를 위한 협력 행동을 피드백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수업몰입의 하위요인은 스포츠인성의 각 하위요인에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행동적 몰입은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인지적 몰입은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에서, 정서적 몰입은 자신감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특히 행동적 몰입이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 결과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실제 참여행동이 스포츠인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보여준다. 이는 팀스포츠 수업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수업내용을 이해하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

고, 수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료와 의사소통하며, 팀 목표를 위해 행동을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실제로 스포츠클럽 수업 참여는 상호협력 행동, 윤리적 민감성 및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인국, 이현수, 최수정, 2021), 대학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맡은 활동에서 조원을 지도하며 책임감을 경험하고, 동료에게 배운 기술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긍정적 수업태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박미정, 박경란, 2024). 따라서 이러한 행동적 참여는 자신의 수행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팀원과 함께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의식과 자기희생적 태도, 그리고 수업과 팀 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관련될 수 있다.

한편 인지적 몰입은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에서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나, 자신감과 자기희생과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팀 활동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려는 인지적 몰입이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와는 관련될 수 있지만, 자신감과 자기희생은 실제 수행 및 협력 경험과 더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오중근(2021)은 체육수업에서 교사의 관계성지지는 학생들의 공동체의식과 학습참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을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인성은 지식 전달만으로 형성되기보다 실제 스포츠 상황에서의 실천 과제, 공동체 활동 및 반성적 실천을 통해 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박정준, 2025), 인지적 이해와 함께 역할 수행 및 협력적 실천 경험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적 몰입은 자신감에서만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이는 심리적 안정감 및 자신의 수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체육수업에서 대학생의 동료격려는 자기효능감, 즐거움 및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즐거움은 노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 정서 경험 이 자기효능감 및 수업 참여 노력과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김인수, 2023).

다만 본 연구에서 정서적 몰입이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 태도와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즐거움이나 흥미만으로는 팀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나 공동체적 태도 형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선행연구에서 체육수업이 학생의 도덕적·사회적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참여를 넘어 도덕교육 요소와 수업 구조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음이 제시되었다(Jadwiszczak, Wawrzyniak, & Pezdek, 2025).

따라서 교수자는 수업몰입의 하위요인에 따라 수업전략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인지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규칙, 팀 내 역할, 협력 방식 및 책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하고, 정서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즐거움과 긍정적 정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행동적 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 경기 상황에서 역할을 맡고, 팀 활동에 참여하며, 동료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과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교양체육 수업에서도 교수자의 교수유형은 수업몰입, 체육교과태도, 능동참여, 적극수행 및 긍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천성민, 2021), 이러한 측면에서 스포츠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해하고, 즐겁게 경험하며,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다차원적 수업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넷째,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에서 수업몰입의 병렬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스포츠인성 하위요인별로 유의한 매개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신감은 정서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을 통해, 공동체의식은 인지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을 통해, 자기희생과 긍정적 태도는 행동적 몰입을 통해 유의한 간

접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일관된 매개경로로 나타났다. 이는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가 학생들의 수업몰입 양상에 따라 서로 다른 간접경로를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스포츠클럽 참가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운동몰입과 스포츠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연결된다(임수연 등, 2020). 또한 체육수업에서 지각된 케어링 분위기가 교사-학생관계 및 수업몰입과 구조적으로 관련된다는 선행연구 결과는 배려적 수업환경과 교육적 결과의 관계에서 학생의 몰입 과정이 관련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윤상용, 2023). 학교스포츠클럽 연구에서도 케어링 분위기는 내적동기와 스포츠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 사이에서 학생의 심리적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서정호, 김인형, 2021).

특히 본 연구에서 행동적 몰입이 가장 일관된 매개경로로 나타난 점은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실제 참여경험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케어링 분위기는 학생들이 수업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심리적 기반이 될 수 있지만,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팀 활동 참여, 역할수행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체육수업에서 케어링 분위기, 정서 및 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케어링 분위기와 정서가 수업 참여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Simonton et al., 2022). 또한 청소년 스포츠 연구에서는 케어링 분위기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어, 두 변인의 관계에서 개인의 심리적 과정이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Fry et al., 2012).

특히 대학 체육수업에서도 역할 수행은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 책임감, 협력 능력 및 리더십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하영, 이재정, 심승보, 이아름, 2024), 팀 소속감과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은 학생의 개인적·사회적 기술 발달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ssa, Hastie, Araújo, & Mesquita, 2019). 따라서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에서 스포츠인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케어링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제 수업몰입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동적 몰입이 핵심 매개경로로 확인된 만큼, 교수자는 팀 소속, 역할 수행, 동료 상호작용 및 공동과제 수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업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이 단순한 운동기능 학습을 넘어, 학생들이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사회적 여가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대학 교양체육 참여동기는 여가활동 몰입경험과 관련되며(구창모, 안병욱, 전대준, 2010), 여가 시간 신체활동의 지속에는 참여 의도와 함께 계획 및 실행과 같은 행동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김보람, 2022). 따라서 대학 교양체육은 학생의 스포츠인성 함양뿐 아니라 긍정적인 여가스포츠 경험을 지속적인 신체활동 참여로 연결하는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 교양 팀스포츠 수업 참여자가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가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관계에서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의 병렬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케어링 분위기는 인지적 몰입, 정서적 몰입 및 행동적 몰입과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행동적 몰입과의 관련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둘째, 케어링 분위기는 스포츠인성의 자신감, 공동체의식, 자기희생 및 긍정적인 태도와 모두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와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셋째,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으며, 인지적 몰입은 공동체의식과 긍정적 태도에서, 정서적 몰입은 자신감에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넷째,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에서 자신감은 정서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을 통해, 공동체의식은 인지적 몰입과 행동적 몰입을 통해, 자기희생과 긍정적 태도는 행동적 몰입을 통해 유의한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행동적 몰입은 스포츠인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공통적인 매개경로로 확인되었다.

종합했을 때, 케어링 분위기와 스포츠인성의 관계는 수업몰입을 통해 부분적으로 설명되었으며, 특히 팀 활동과 과제 수행에 실제로 참여하는 행동적 몰입은 모든 스포츠인성 하위요인에서 공통적인 매개경로로 나타났다. 이는 스포츠인성 함양을 위해 긍정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이 역할 수행, 동료와의 협력 및 공동과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조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수자는 팀 편성과 역할 분담 과정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결과뿐 아니라 참여 노력, 역할 수행 및 협력 과정을 평가와 피드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팀 활동에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업몰입과 스포츠인성을 지원하는 수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및 충남 지역 농구, 배구 및 축구 수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

였으므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지역과 대학 및 수업 종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수업몰입의 하위요인만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수자의 지도행동, 팀 응집력, 운동기능 수준 및 수강동기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구창모, 안병욱, 전태준(2010). 대학생의 교양체육 참여 동기가 여가활동 몰입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3(3), 19-35.
- 김보람(2022). 건강행동과정접근(HAPA)모델을 적용한 여가시간 신체활동(LTPA) 참여자의 행동과정 검증.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6(4), 51-65.
- 김성훈(2025a). 신체적 자기개념과 체육수업몰입의 관계에서 학습동기의 조절효과. **교육발전**, 45(1), 89-108.
- 김성훈(2025b). 학습자 중심의 교양체육 수업 설계: 실천공동체(CoP)와 플립러닝의 통합적 접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14), 619-636.
- 김승환, 천성민, 김민규(2024). 포스트팬데믹 시대의 대학 교양체육 이슈와 대처방안. **교육문화연구**, 30(3), 361-374.
- 김인수(2023). 체육수업에서 동료격려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즐거움이 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8(5), 177-188.
- 김종환(2008). 체육교사의 교수행동에 대한 인식과 체육수업관련도 관계에서 체육수업몰입의 매개효과. **한국체육학회지**, 47(5), 197-209.
- 김하영, 이재정, 심승보, 이아름(2024). 스포츠교육 모형 적용 체육 수업이 체육 전공 대학생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12(6), 115-124.
- 박미정, 박경란(2024). 직소(Jigsaw)모형을 적용한 대학 체육수업이 예비특수교사의 수업 태도와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5(4), 99-119.
- 박인국, 이현수, 최수정(2021). 장애학생과의 스포츠클럽 수업이 비장애학생의 상호협력행동, 윤리적민감성,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체육학회지**, 29(2), 21-34.
- 박인경(2025). 대학생의 피지컬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교양체육 교육 내용 분석과 방향 탐색.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9(3), 81-96.
- 박정준(2025). 상황학습 이론 기반 스포츠 인성교육의 원리, 효과, 전이 과정에 관한 통합적 고찰. **교원교육**, 41(6), 447-466.
- 박태희, 이종경(2016). 고등학교의 체육수업환경이 체육수업몰입 및 수업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학회지**, 14(3), 339-348.
- 박형길(2025). 대학 교양체육 수업의 사회자본 발현 사례 연구: 야구 종목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9(1), 131-141.
- 서정호, 김인형(2021).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이 지각하는 케어링분위기가 내적동기 및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4(3), 36-54.
- 심윤식(2012). 한국어판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 척도의 타당도와 초등학생의 체육수업태도에 미치는 영향 검증. **한국초등체육학회지**, 18(3), 133-142.
- 오승현(2025). 인성 기반 역량 함양 교육으로서 교양체육 배구수업 참여 경험의 질적 분석. **학교와 수업 연구**, 10(3), 141-171.
- 오중근(2021). 체육교사의 관계성지지와 공동체

- 의식 및 학습참여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155-165.
- 우승환(2025). 청소년 축구선수의 지각된 리더십과 케어링 분위기 그리고 5C의 관계: 기본심리육구의 조절효과. **한국체육학회지**, 64(1), 447-460.
- 유지원(2011). 학습자의 몰입에 영향을 주는 동기요인, 심리적 중재 요인, 사회적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윤상용(2023).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지각한 케어링 분위기와 교사-학생관계 및 수업몰입의 관계.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8(2), 119-132.
- 이훈희, 이석준(2020). 중·고등학생이 인지하는 체육수업의 케어링분위기와 운동정서 및 수업몰입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193-205.
- 임수연, 민솔비, 김용은, 김준(2020). 학교스포츠클럽 참가 중학생의 케어링분위기와 동기분위기가 운동몰입 및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5(1), 187-200.
- 임지은, 박태승, 주성택(2024). 학교스포츠클럽 고등학생 참여자가 지각하는 케어링 분위기가 자율성 및 스포츠인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33(5), 60-71.
- 정은이(2023).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몰입과 수업유용성이 학습지속의향 및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실시간 화상 수업과 동영상 제작 수업의 비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331-351.
- 정태린(2022). 대학 교양체육 실기수업 수강생이 지각하는 교수자의 지도역량과 교수자신평 및 수업만족의 관계. **교양교육연구**, 16(3), 239-248.
- 제민수, 김인형(2024).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여중생의 인지된 케어링분위기가 운동열정 및 스포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9(3), 121-134.
- 조진호(2018). 특성화고 체육교사의 지도유형이 학생의 수업몰입과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30(2), 690-699.
- 차은주, 김영재, 허정훈(2013). 스포츠참가 청소년인성 평가도구 타당화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2(2), 361-373.
- 천성민(2021). 교양체육수업의 교수유형이 수업만족 및 수업몰입, 체육교과태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9(7), 397-408.
- 최지아, 김영옥, 권영문, 오수학(2024). 체육수업에서의 내적동기와 수업만족도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Science**, 12(4), 29-38.
- Bednář, M. (2023). The constitutive values of fair play. *AUC Kinanthropologica*, 59(2), 79-92.
- Bessa, C., Hastie, P., Araújo, R., & Mesquita, I. (2019). What do we know about the development of personal and social skills within the sport education model: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ports Science & Medicine*, 18(4), 812-829.
- Csikszentmihalyi, M. (1990). *Flow: The psychology of optimal experience*. Harper & Row.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2004).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4(1), 59-109.
- Fry, M. D., Guivernau, M., Kim, M., Newton, M., Gano-Overway, L. A., & Magyar, T. M. (2012). Youth perceptions of a caring climate, emotional regul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port*,

- Exercise, and Performance Psychology*, 1(1), 44-57.
- Gano-Overway, L. A. (2013). Exploring the connections between caring and social behaviors i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84(1), 104-114.
- Handelsman, M. M., Briggs, W. L., Sullivan, N., & Towler, A. (2005). A measure of college student course engagement.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8(3), 184-192.
- Hayes, A. F. (2022).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3rd ed.). Guilford Press.
- Hogue, C. M., Cabarkapa, D., Fry, M. D., Fry, A. C., Wineinger, T. O., & Chamberlin, J. M. (2025). Caring task-involving climate leads to greater improvements in free-throw shooting biomechanics and motivational responses. *Frontiers in Psychology*, 16, 1667429.
- Jadwiszczak, M., Wawrzyniak, S., & Pezdek, K. (2025). More than movement: A systematic review of moral and 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ts physical education. *BMC Public Health*, 25, 2076.
- Linnenbrink, E. A., & Pintrich, P. R. (2003). The role of self-efficacy beliefs in student engagement and learning in the classroom. *Reading & Writing Quarterly*, 19(2), 119-137.
- Metz, S., Zander, B., & Hunger, I. (2026). The suffering of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Unsettling experiences and situational conditions. *Physical Education and Sport Pedagogy*, 31(3), 409-421.
- Munk, M., & Agergaard, S. (2015). The processes of inclusion and exclusion in physical education: A social-relational perspective. *Social Inclusion*, 3(3), 67-81.
- Newland, A., Newton, M., Stark, A., Podlog, L., & Hall, M. (2017).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a caring climate in group physical activity classes. *Biomedical Human Kinetics*, 9, 99-106.
- Newton, M., Fry, M., Watson, D., Gano-Overway, L., Kim, M. S., Magyar, M., & Guivernau, M. (2007).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aring climate scale in a physical activity setting. *Revista de Psicología del Deporte*, 16(1), 67-84.
- Pintrich, P. R. (2003). A motivational science perspective on the role of student motivation in learning and teaching context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5(4), 667-686.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 Simonton, K. L., Garn, A. C., & Washburn, N. (2022). Caring climate, emotions, and engagement in high school physical education. *Journal of Teaching in Physical Education*, 41(3), 401-410.
- Stringfellow, A., Wang, C.-H., Farias, C. F. G., & Hastie, P. A. (2024). The development of an "engagement in

- physical education” scale. *Frontiers in Sports and Active Living*, 6, 1460267.
- Xia, Q., Xuan, S., Zhang, T., & Zong, B. (2025). How autonomy support sustains emotional engagement in college physical education: A longitudinal study. *Behavioral Sciences*, 15(6), 822.
- Xu, C., Fry, M. D., & Long, H. (2025). Extraversion as a personality dimension mode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aring climate and athletes’ relationships with teammates.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79, 102860.